

庚子。即明宗十一年也。始創萬魚寺。棟梁寶林狀奏所稱山中奇異之迹。』
라 하였는데 여기서 大定 十二年은 金世宗 十二年으로 高麗明宗 二年壬
辰(一一七二 A, D.)이며 明宗 十一年은 大定 二十一年 辛丑인데 庚子年
은 大定 二十年 明宗 十年임으로 大定 十一年과 庚子 明宗 十一年의 三者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庚子가 大定 二十年인데 이것은 十二年의 誤記가 아
닐까 생각됨에서 三者를 符合시킬 때의 年代인 一一八〇年을 萬魚寺始創
으로 보는 것도 無理는 아닌 것으로 思慮된다. 따라서 石塔도 그 樣式手
法으로 보아 同時代作으로 推定된다. 現在 境內에는 當代의 遺物이 없
으며 塔前方에 長 四〇m의 石築이 있어 注目된다. 建築物는 約 四〇年
前에 建立하였다는 大雄殿과 彌勒殿 各一棟과 寮舍三棟이 있다.

註

① 三浪津驛에서 南北方約 八km 萬魚山頂에 位置한바 西向하였는데 이
周圍는 石洞으로 動的인 魚石이 數없이 散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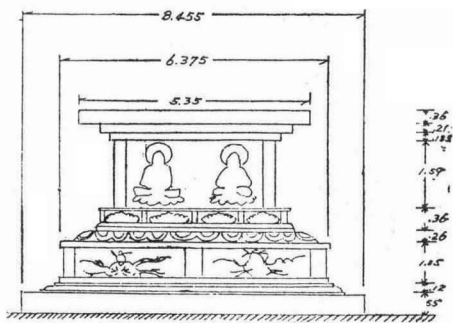
② 卷之二十六密陽(佛宇) 萬魚寺. 在萬魚山. (古跡)萬魚山磐石. 山中
有一洞. 洞中岩石大小皆有鐘磬之聲. 世傳東海魚龍化爲石. 我世宗
朝. 採之作磬不中律遂廢.

③ 堂內에는 自然巨石을 「彌勒尊佛」이라 稱하면서 信仰하며 太極道人
無極道人들의 住居處라 한다. 現住持 梁雲耕氏에게서 「萬魚山石佛堂
重修上樑文, 昭和八年癸酉十月十三日子時立柱上樑」의 墨書銘을 調
査할 수 있었다.

陝川 清涼寺 石造如來坐像의 臺座

申 榮 勳

指定物(寶物二六五號)인 이 新羅如來坐像의 臺座는 前부터 注目되어
왔으나 本部施設을 除去할 수 없어 궁금한 채로 지나왔었다. 多幸히
지난 七月 調査員一行이 住持를 說得시켜 그의 손에 依하여 該部分이
露出되어 調査할 수 있었으므로 간단히 紹介하여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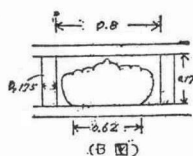


(A圖. 清涼寺 石造如來坐像 臺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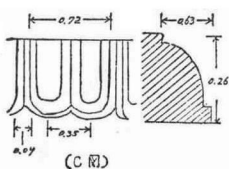
殿內板床 아래 숨겨졌던 部分은 眼象이 있는 곳부터의 아래쪽이었다. 方形臺座의 上臺石은 一邊이 五·三五尺(厚 三·六尺)으로 副椽을 가졌고 그 아래로 菩薩坐像이 새겨진 中臺石이 놓였다. 그것을 받는다 下臺石은 二段으로 되어 眼象이 一面에 四區씩 있는 上段과 八部神衆이 새겨진 下段으로 構成되었고 그 아래에 地臺石이 緊密하게 받쳐져 있었다. 그 밑의 基礎關係는 이번에 調査할 수 없었다. (A圖 參照)

眼象四區는 隅柱 혹은 撐柱와의 間地에 刻出되었는바 한쪽이 三顆씩인 蓮瓣形이다(B圖參照) 眼象아래로 二級의 段이 있고 거기서 부터는 넓적하고 雅淡한 蓮瓣이 새겨져 있다(C圖參照) 翻衣하는 모습의 八部神衆은 各面에 二軀씩 浮彫되어 있으나 保存狀態가 나빴었음인지 全貌를 把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地臺石은 位置에서 動搖되어 不整하다.

像과 光背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像高 六·六尺 肩幅 三·四五尺 胸幅 二·一尺 膝幅 四·四尺 光背高 八·五尺 同幅 五·九五尺 同厚 〇·六尺(像·光背·臺座 모두 花崗岩製)



(B圖)



(C圖)